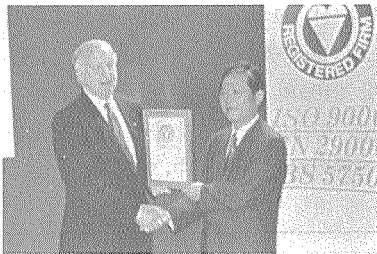


金星社 ISO9001 인증 획득

**TV, VCR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
(주) 금성사



金星社(대표 李憲祖)는 최근 TV·VCR·조리기기공장이 英國 표준협회(BSI)로부터 ISO9001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금성사가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ISO9000시리즈에서 정한 제3자 인증규격 가운데 범위가 가장 넓은 설계·개발·생산·설치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동사는 이번 인증 취득이 주력제품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동사는 지난 '90년 8월과 올 2월에 사무기기공장과 정보시스템공장이 BSI로부터 각각 ISO9002 인증을 받는데 이어 이번에 TV, VCR, 조리기기공장이 9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제품 기획에서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星機電 PLC 개발

초소형 PLC 개발
금성기전 (주)

金星機電(대표 金會水)은 국내 프로그래머블로 직컨트롤러(PLC)중 가장 작은 용량인 입출력 점수 14점대의 초소형 PLC(모델명 골드섹V6)를 개발했다.

동사가 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지난 91년부터 2년여동안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모두 자체기술로 개발한 이 제품은 기본 입출력 점수가 14점으로 적은데도 데이터처리속도가 스텝당 160만분의 1초로 고속일뿐 아니라 입출력일체형 구조로 설계돼 소형 단위기계의 릴레이 제어반 대체용으로 적합하다.

특히 이 PLC는 IEC의 PLC 규격에 맞춰 설계된 국내 최초의 제품인데 금성기전은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에 유리, 수출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최대 28점까지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특히 원칩(one-chip)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채용, 크기가 적어 어떤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자동검색 및 수정이 가능한 자기진단기능, 첨단기능을 갖추고 있다.

金星情報通信 무선 PBX 시스템

**「스타렉스-CX」
형식승인 취득**
금성정보통신 (주)

金星情報通信(대표 鄭壯皓)이 최근 체신부로부터 무선 PBX시스템인 「스타렉스-CX」의 형식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무선PBX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번에 형식승인을 획득한 무선 PBX시스템은 금성정보통신이 지난해 2월 국내 처음으로 자체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제1세대 무선

업·계·소·식

전화인 가정용 코드없는 전화기(CT1)나 착신만 가능한 제2세대 무선전화기(CT2)와는 달리 수km 이내의 일정 반경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착·발신이 모두 가능한 차세대 무선전화시스템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는 무선PBX에 대한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 규칙이 없었으나 이번에 「복수통화권형 다기능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순수 국내 무선교환기술의 본격 활용시대가 열리게 됐다.

「스타렉스-CX」 시스템은 이동통신 교환기인 사설 무선교환기(PCX), 반경 70~200m의 마이크로 셀(통화가능 지역)을 형성하는 무선기지국 고정장치, 배터리 포함 310g의 소형 경량인 전용휴대기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최대 30개의 구내 기지국 고정장치를 연결할 수 있고 120개의 휴대형 전화기를 수용할 수 있다.

초경량 생활무전기

개발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白重英)은 허가나 신고의 절차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무전기(CB) 금성파트너(제품명 GWC-200)를 개발,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국내 최소형(150×55×35mm), 최경량(235g)으로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게 설계됐으며 40채널의 고성능 컨덴서 마이크를 실장해 통화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PLL 주파수 합성방식을 채택해 장거리 통신이 가능(송신출력 3W)하다.

주요 기능은 송수신 감도표시 기능, 건전지 절전기능 등이 있으며 모든 표시기능이 액정표시판에 나타나도록 설계돼 있다.

Fax사업 본격 진출

동양전자통신 (주)

교환기 전문업체인 東洋電子通信(대표 신철순)이 팩시밀리 사업에 진출한다.

동사는 그동안 국내 교환기 시장에 TDX교환기를 공급해왔으나 최근 교환기사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자다각화 방안의 일환으로 팩시밀리 사업에 진출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전자통신은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의 팩시밀리 전문업체와 제휴해 팩시밀리 기술을 도입, 빠르면 7~8월경에 제품을 출시할 방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사가 공급하기로 한 팩시밀리는 저가형 제품으로 팩스 송수신 기능에만 주로 충실하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작고 휴대가 간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사는 최근 모토롤라의 계열사로부터 모뎀·DSU(데이터 서비스 유닛)·다중화장비(MUX) 등을 수입공급하기로 하는 등 신규

사업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우즈베크 공화국에
TDX 교환기 수출**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은 지난 5월 17일 우즈베크공화국에 8만회선 규모의 국산 TDX를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우통신은 박성규 사장과 우즈베크 공화국의 카밀잔 라히모프와 8만회선의 물량 중 우선 1차분 5만회선에 대해 정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크 공화국은 현재 총 170만회선이 전부 기계식교환기로 구축돼 있고, 1백인당 전화보급률도 7.7회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우통신은 한국IBM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 리스크 워크스테이션을 OEM 방식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IBM 리스크 시스템/6000 기종을 OEM 방식으로 공급받아 금성소프트웨어가 보유한 솔루션을 추가, DTC-4000이라는 자체상표로 공급을 시작한다.

대우통신은 이번 리스크 시스템/6000 워크스테이션 공급과 관련, 우선 CPU본체를 OEM 방식으로 도입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들 제품을 부품형식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생산, 내수시장을 겨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우통신은 최근 그래픽 전용 단일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처리속도를 가진 32비트 그래픽 가속기를 자체개발, 5월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AGC 98032로 이름붙여진 이 칩은 MS-윈도우, 윈도우 NT 및 프리젠테이션 매니저, X-윈도우 등과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상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수행속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설계, 오토캐드나 마이크로스테이션 등과 같은 카드 응용프로그램의 성능향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휴대형 무전기 개발
맥슨전자 (주)

맥슨전자(대표 尹元榮)는 500~512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휴대형 무선송수신기(모델명 GPL-3620A)를 개발,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모든 활성소자를 반도체로 설계해 성능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이며 제품의 소형경량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실장부품(SMD)을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PLL 주파수 회로를 채용, 최대 16채널을 수용할 수 있고 혼신방지를 위한 통화채널 송신금지 기능이 있으며 송신시간 제어기능, 송신시간 지연기능 등이 있다.

이 밖에 내부 프로그램 복제기능, 전지소모 절약 기능이 있고 자체진단 기능도 갖추고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32비트 로컬버스 기능채용
VGA카드 「레인보우」 시판**
삼영기전 (주)

三環機電(주)(대표 趙吉完)이 VESA로컬버스 방식의 고해상도 VGA카드 「레인보우 VESA」를 개발해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

동사가 개발한 레인보우 VESA(모델명 VX-16M/VESA)는 윈도우 가속기능과 32비트 로컬버스 기능이 내장된 시러스로직社의 그래픽 프로세서를 채택해 처리속도가 기존 ISA방식에 비해 3배정도 빠르다.

또 그래픽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화소당 4.15.16비트 출력은 물론 확장 그래픽모드인 24비트 자연색상 출력도 무리없이 지원해 준다.

색상수는 800×600해상도에서 최대 1,680만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1280×1024 고해상도 모드에서 256 색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레인보우 VESA는 오토카드, 오토세이드, 3D스튜디오, MS-윈도즈 등 총 14종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화면상에서 편리하게 모니터 및 그래픽카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센서사업 생산량
대폭 늘려**
삼영전자공업 (주)

삼영전자공업(주)(대표 邊東俊)가 신제품 개발 및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센서 사업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피던스형 습도센서의 본격 생산에 나선 삼영전자는 최근 개발한 결로센서의 양산체비를 서두르는 한편 농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센서 응용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동사는 현재 가전업체들로부터 결로센서의 성능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대로 곧바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결로센서는 습도센서의 일종으로 캠코더·VCR·팩시밀리 등에서 기기의 내외부 온도차 등으로 인한 물방울 맺힘현상을 감지, 이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동사는 한편 습도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을 적극 추진,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사업성을 크게 제고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회사는 현재 농작물 재배용 센서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거의 끝내고 곧 상품을 출하할 예정이다.

**8mm 캠코더 등 3개제품
EIA에서 올해의 명품으로
선정**
삼성전자 (주)

三星電子(대표 金光浩)의 8mm 캠코더 및 VCR과 19인치 비디오비전 등 3개 제품이 미국전자공업협회(EIA)에 의해 올해의 명품으로 선정됐다.

EIA 명품선정위원회는 삼성전자의 8mm 캠코더가 초경량(750g) 초소형으로 설계돼 편리성이 극대화됐고 8mm VCR도 기존 제품의 3분의 1크기 밖에 안되면서 화질과 음질이 뛰어나서 19인치 비디오비전은

디자인이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EIA에 의해 올해의 명품으로 선정된 이들 제품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쇼인 하계 CES의 「명품전시관」에 전시된다.

EIA는 산업디자인·전자관련 언론계·전자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명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다.

HDTV용 광학계 개발
삼성종합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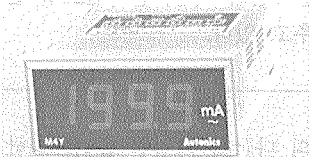
삼성종합기술원(원장 鄭裕文)은 자체설계한 비구면렌즈를 채용해 55인치 대형화면이면서 두께가 얇고 렌즈해상도가 2000본인 HD 프로젝션 TV용 광학계를 개발했다.

이 광학계는 CRT배면 투사형으로 HDTV는 물론 고해상도를 요하는 데이터 그래픽스 등 업무용 CAD, CAM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이 제품은 기존의 배면투사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좌우화면 광량차이를 1% 이내로 유지했고 렌즈를 특수코팅 처리, 색재현 범위를 20% 확대해 자연색에 가깝도록 했다.

고신뢰성 판넬메타
시판

(주) 오토닉스



오토닉스(대표 박환기)는 DIN 규격에 의한 Case Size(W72×H36×L100)로 Panel 취부시 용이한 New Design Model을 시판한다.

7Segment LED Display(3½ Digit) 표시 방식으로 밝고 선명한 지시로 확인이 편리하며 Free Power(AC 90~264V, DC 30~70) 사용이 가능하며 Holding 기능과 고신뢰성을 실현하였다. 이 제품의 용도는 중앙집중감시반, 그래픽판넬용도에 적합하며 기타 판넬용 Display로 적합하다.

산업용 영상장비사업
박차

(주) 인켈 P.A

PA기기(확성장치) 전문업체인 인켈 PA(대표 趙舜九)가 CATV시스템·장거리화상 전송시스템 종합방법시스템 등 영상장비 부문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켈 PA는 지난 3월 CCTV·CATV·멀티큐브시스템·자동화상추적시스템 방법시스템·장거리 화상 전송시스템 등의 개발을 담당할 특수사업부를 발족시킨 데 이어 이제까지 단순 PA기기 위주로 돼 있던 생산체제를 산업용 영상기기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사는 이에 따라 지난달 부산 파라다이스 아멕스호텔에 CATV시스템과 다화면 디스플레이 장치인 멀티큐브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고 조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대형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주문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인켈PA는 또 적외선을 이용한 자동 화상 추적장치와 장거리 화상 전송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원격제어시스템도 개발중이다.

인켈PA는 이와 함께 각종 학교 및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전문 AV시스템의 설치에도 나서는 한편 JVC·EV 등 외국전문업체들의 비디오카메라·스피커시스템 등의 국내 공급에도 나섰다.

팩스 Modem 진출 콤텍시스템 (주)

정보통신 관련 전송장비 전문업체인 콤텍시스템(대표 南錫祐)이 팩스모뎀 시장에 진출했다.

콤텍시스템은 최근들어 일반 기업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팩스모뎀의 수요가 크게늘고 있다고 보고 팩스모뎀 전문업체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OEM방식으로 공급받아 「크리스탈」이라는 상표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사가 판매에 들어간 팩스모뎀은 자체한글을 내장했기 때문에 한글카드가 없는 PC에서도 자유롭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워드프로세서 파일의 한글 코드를 자동으로 인식해 팩시밀리로 송신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최대 32개의 문서를 각 문서당 32개 수신처에 순차적으로 통보할 수 있고 송신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지정한 횟수만큼 다시 송신함으로써 문서를 송신할 때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전용 그래픽 에디터를 내장하고 있어 각종 그림 파일들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고 예약송신기능, 문서관리 기능, 전화번호부 관리, 백그라운드 자동수신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현금입출금기 시장 진출 한국컴퓨터 (주)

한국컴퓨터(대표 韓홍섭)가 이탈리아의 다국적 기업인 올리베티社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고 이 시장에 본격 가세한다.

한국컴퓨터는 올리베티와 현금출금기인 「CD6300」과 입금기능까지 채용한 「ATS6400」 2개제품에 대해 국내 공급계약을 맺고 내달부터 본격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컴퓨터가 공급할 올리베티의 CD6300은 출금기능만을 사용하다 차후 입금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금 2종과 수표까지 출금할 수 있으며, 내부 시스템제어용 컴퓨터로 386기종을 탑재, 입출금업무 처리속도를 향상시켰고 컬러모니터를 채용해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ATS6400은 봉투식 ATM으로 한번에 최대 300배까지 입금 가능하며, 내부에 잉크젯프린터가 내장돼 다양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다.

동사는 이들 제품에 대해 다음달 초 제품 발표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VAN넷워크에 연결, 금융서비스 단말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공정 사용
감광막 제거장비 개발**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대표 鄭夢憲)는 국내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感光膜제거장비를 국산화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웨이퍼패턴 형성용 감광막을 제거하는 이 장비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감광막제거방식(Single Type Microwave Plasma Down Stream Asher)을 채택, 16MD램이상의 고집적 반도체 개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동사는 이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해 국내 반도체장비산업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연간 700만달러상당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기술을 사용, 오는 4/4분기부터 월간 8인치웨이퍼 3,000매상당의 16MD램을 생산할 계획이며 오는 '94년 1/4분기에는 웨이퍼생산을 2배로, 그리고 '95년에는 생산량을 월간 8,000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93 중국 컴퓨터 전람회 개최 안내

1. 일시 : 1993. 12. 7~12. 11
2. 장소 : 북경 국제전시센터
3. 전시품목 : 컴퓨터 및 주변기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4. 주최 : China Great Wall Electronics Exhibition Corporation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5. 문의처 :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Hong Kong(Tel : 852-511, 0511)